

# “함께 소통하며 한국불교 변화 가능성 보았다”

## ■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과제

중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지난 14일 회향식을 끝으로 올 한 해 정해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공약사항이었던 100인 대중공사는 중단 운영에 대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1월14일 신년기자회견 당시 총무원장 스님은 “대중공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함으로써 중도들에게 신뢰받는 중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대중공사 시작 전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가 존재했지만 지난 1월28일 출범 이후 100인 대중공사는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중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지난 14일 회향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사부대중 공의를 중단 운영에 반영한 점은 성과로 꼽히는 반면 지역별 대중공사로 확산되지 못한 점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열린 제9차 100인 대중공사. 불교신문 자료사진

## ■ 100인 대중공사 주요 일지

- 1월14일 총무원장 스님 신년회견 '중단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대중공사' 천명
- 1월28일 100인 대중공사 출범
- 2월24일 2차 대중공사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결의
- 3월25일 3차 대중공사 사찰 재정공개 결의
- 4월27일 3차 대중공사 후속조치 사찰재정 공개 계획 발표
- 4월29일 4차 대중공사 '승가청규 제정' 공포 '4대 의제 10대 과제' 적극 실천 결의
- 6월18일 서의현 총무원장 재심결정 불교계 내 논란 심화
- 7월16일 5차 대중공사 서의현 총무원장 재심결정 긴급 의제 선정
- 7월29일 5차 대중공사 재심회계위원 사퇴 권고 사부대중 공의기구 구성
- 8월26일 6차 대중공사 출가승단 강화와 비구니·재가불자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결의
- 9월8일 4차 대중공사 후속조치 대비원력 발심과 실천 위한 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
- 9월23일 7차 대중공사 승가청규 대중적 실천 수행풍토 조성 노력 결의
- 10월28일 8차 대중공사 불의 사회적 역할 확대 위해 교구와 사찰의 사회참여 지역 사회 내 적극적 역할 필요 결의
- 11월25일 9차 대중공사 지역 공동체 구심으로서 사찰 역할 모색 결의
- 12월1일 100인 대중공사 평가 좌담회
- 12월14일 100인 대중공사 회향식

## ○ 대중공사가 남긴 성과

무엇보다 100인 대중공사는 중단 역사상 최초로 사부대중이 참여해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실에 안주하고 중단 현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중단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원·율원·강원·비구니 스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신도포교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부대중이 대중공사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불교 내부 문제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대중공사가 열린 사례는 있었으나 불교 근현 대사에서 중단 지도부부터 재가불자들까지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사부대중 대중공사는 이번 100인 대중공사가 유일한 사례다. 특히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참여해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공사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실천해 한국불교와 중단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중단 집행부 중심의 중단 운영이 아닌 사부대중의 공의를 중단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 점도 눈에 띈다. 대중공사 제도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똑같은 자격을 부여받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불교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통합중단 출범 이후 중단 운영이 체계화되고 틀을 갖추면서 효율적인 중단 운영과 안정화는 중단 집행부 중심의 중단 운영이 갖는 장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교 교구의 의사결정 방식인 대중공사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100인 대중공사는 현대적인 방식과 대중공의를 반영한 중단 운영의 만능이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결합이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

## 사부대중 공의 중단운영 반영 중단화합 개혁 사부대중위원회 출범 사부대중 토론문화 형성 '성과'

## 미래세대위원회 등 지지부진 '100인 대중공사에 관한 법' 제정 결정사항 이행위한 강제규정

## 의제선정 전 조사 정보제공 필요 효율성 높이기 위한 위상 정립 지역별 대중공사 확산은 '과제'

정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사부대중이 열린 토론을 통해 모든 공의가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대중공사의 큰 성과다. 사찰재정 투명화와 '중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중공사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중단은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를 공표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을 두고 중단 안팎이 혼란에 빠지자 이를 대중공사 긴급 의제로 다루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또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해 사부대중 공의기구 구성과 공의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를 결의했고, 이같은 대중공사의 결정은 '중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중단 내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한 점도 대중공사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100인 대중공사 참가 위원들은 하나의 의제를 주제로 한

모둠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통해 평소 가진 소신들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대중공사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대중공사가 중단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평등하게 참여한 대중공사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강조하며 “대중공사는 불교의 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목종스님은 “불교 현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하다. 중단 집행부와 선원, 재가불자들의 활동에 대한 편견이 완화됐다”며 “함께 소통하며 희망의 빛을 보았고 한국불교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주동학사 주지 유곡스님은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말로만 끝난 것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성과 계승 위한 과제는

반면 100인 대중공사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100인 대중공사 논의 결과에 대한 실행과 지속적 실천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2차 100인 대중공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미래세대위원회는 지지부진하다. 총무원 기획실과 포교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사부대중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100인 대중공사의 경우 출·제가 사이의 명확한 인식 차를 보이며 토론 진행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대중공사 결의사항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대중공사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대중공사 평가 좌담회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

중공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결정 사항에 대한 중단 각급 기관의 이행 강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공사가 아닌 중앙 집중형으로 대중공사가 진행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산사와 선운사를 중심으로 최초로 지역 대중공사가 출범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불교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중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중공사를 확산해야 한다. 교구본사 및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대중공사가 진행될 때 대중공사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하반기 기로갈수록 스님과 재가자의 참석이 낮았던 점과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불자 참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전에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대중공사 인식조사 결과 “의제선정 전에 면밀한 조사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00인 대중공사가 중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사부대중의 토론문화에 형성에 기여한 점은 분명한 성과다.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대중공사의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 100인 대중공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매월 대중공사를 개최하는 방식이 아닌 분기별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100인 대중공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한 해 대중공사의 성과와 한계를 사부대중과 함께 공유한다면 내년에는 한층 발전된 100인 대중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규 기자 chet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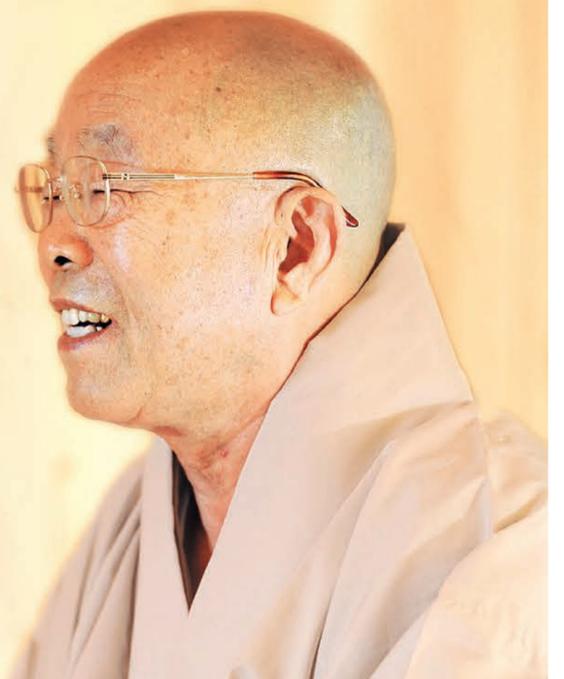
## 道林堂도림당 法傳大宗師법전대종사

## 1주기 추모법회

## 감사의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12대 종정 도림당(道林堂) 법전대종사(法傳大宗師)의 1주기 추모법회가 불기 2559년 12월 12일(토)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습니다.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심정으로 추모법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기2559(2015)년 12월 12일

도림문도회 대표 원오 문도일동